



다같은 '에너지 1등급'은 NO! 더 똑똑하게 고르려면? 삼성 '셀프케어' vs LG '자동케어'



>> 1면 '삼성-LG 에너지 효율'서 계속

신규 환급대상에 건조기 '총 11개' 삼성, 에어살균으로 실용성 초점 LG, 트루스팀 내세워 기능 무게 냉장고는 디자인 vs 기능 차이점

4월 출시한 위시타워도 출시하지 불과 2달여만에 건조기까지 1등급을 달성한 신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9kg 소용량 건조기도 1등급 인증을 받으며 맞불을 냈다.

정부도 경쟁 구도에 기름을 부었다. 당초 건조기는 으뜸효율 환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3차 추경으로 새로 포함시켰다. 환급 대상 가전은 총 11개로 늘어나게 됐다.

프리미엄 TV 시장도 뒤늦게 1등급 경쟁이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QLED TV인 QT67 라인업 6개에 대해 1등급 인증을 획득하는데 성공하면서다. LG전자도 최근 55형과 65형 나노셀 TV에 1등급 인증을 받으며 환급 사업 대상 제품을 추가하는데 성공했다.

프리미엄 냉장고도 1등급 시대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지난 2일 최상위 라인업인 셰프컬렉션과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출시하면서 에너지 효율 1등급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앞서 삼성전자는 디자인을 승부수로 한 비스포크 냉장고도 1등급을 달성하며 환급사업에 적지 않은 효과를 입었다. LG전자도 주력 상품인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에서 1등급 달성에 실패했지만, 일반 냉장고로는 상당수 모델을 환급 대상으로 판매 중이다. 김치 냉장고도 양사 모두 1등급 모델을 다수 판매하고 있다.

아직 스탠드 에어컨 시장은 1등급 제



삼성전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QLED TV



LG전자 나노셀 TV.

/LG전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이 '뉴 셰프컬렉션'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인 아일랜드 와인셀러와 서랍형 냉장고.

/연립뉴스

품이 전문한 상태다. 다만, 양사 모두 벽걸이형 에어컨에서는 1등급 제품을 판매 중인 상태로, LG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상용용 스탠드에서 1등급 제품을 출시하며 전선 확대를 예고했다.

공기 청정기 역시 양사 모두 1등급 제품을 판매 중이다. 삼성전자가 큐브와 블루스카이, LG전자 퓨리케어 등이다. 아울러 LG전자는 제습기와 정수기 부문에서도 1등급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양사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 철학이다. LG전자가 로봇을 도입하는

등 '자동'에 집중하는 동시에 '케어 솔루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구매 고객에도 렌탈 서비스와 같은 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대면 서비스를 지양하며 '셀프 케어' 편의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표 제품이 건조기다. LG전자는 일찌감치 트롬 건조기에 콘텐츠 자동 세척 기능을 도입했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그라데AI 건조기에 콘텐츠 세척 뚜껑을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제작해 사용자가 언제든지 세척할 수

있도록 했다.

냉장고도 LG전자는 케어 솔루션을 통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삼성전자는 셰프 컬렉션에 정수기 필터 교체 부분을 '윈터치' 방식으로 설계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체 방식을 설명하는 방법을 택했다.

주요 기능에서도 차별점이 있다. LG전자는 자사 특허 기술인 '트루스팀'을 앞세워 건조기에까지 적용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건조기에 특별한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어 살균+'을 강조하

는 등 실용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가격면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다소 저렴한 편으로 알려졌다. 16kg 건조기를 기준으로 출고가 삼성전자 그라데 AI는 180만~190만원대, LG전자 트롬 건조기는 214만~234만원이다.

양사가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실제 소비자 반응은 베일에 쌓여 있다. 단, 각각 장단점이 분명해서 마케팅 경쟁도 치열하다고 현장 관계자는 귀띔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 벨벳' 패셔니스타 투표하고 선물도 받고

LG전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LG 벨벳 베스트 드레서 투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LG 벨벳의 매력적인 디자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패셔니스타를 뽑는 이번 이벤트는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 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LG전자 페이스북에 접속해 LG 벨벳 체험단 이 활영한 콘셉트의 사진 총 8장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댓글을 남기고 다른 친구를 태그하면 된다. LG전자는 투표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명을 선정해 LG 벨벳 스마트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5월 15일 LG 벨벳을 출시하고 약 4주간 300명 규모의 LG 벨벳 체험단을 운영했다.

체험단은 라이프스타일과 패션·뷰티 등으로 분야를 나눠 활동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SK이노, 협력사 25곳에 상해 보험 패키지 제공

국내 최초 단체보험 패키지 지원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LX)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행복한 사업장 만들기 위해 나섰다.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는 지난 3일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본관에서 SK협력사 구성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SK협력사 The행복한보험'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SK협력사 직원 대표들과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박경환 총괄,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The행복한보험은 SK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SK이노베이션 25개 설비협력사 소속 2233명의 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단체보험 패키지다.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단체보험 패키지를 제공키로 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CLX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SH E(안전·건강·환경) 시스템을 갖춘 이어 상해·질병 등에 대한 불안감까지 해소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며 "코로나19로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어난 많은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협력사 구성원들의 삶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단체보험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협력사 구성원들을 위해 가입한 더(The)행복한보험은 상해사망·후유장애, 중대질병 등 최대 1억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갱신된다. 이 혜택은 기존 입사자뿐 아니라 연중 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험이 지원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정몽준 장남 정기선 현대중 부사장 결혼

현대, 정재계 인사 한자리에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사진)의 결혼식에 범(凡)현대가와 재계 3세대가 대거 참석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갓 졸업한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정 부사장은 신부와 약 2년 동안 만남을 이어간 후 백년 가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혼식에는 현대가 사람들 중심으로 재계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정 부사장의 아버지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결혼식 시작 2시간전인 오후 4시쯤 도착했다.

이후 정 이사장의 3째인 정선이씨와 장선의 동국제강 이사, 정몽일 현대엔파트너스 회장,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 정기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이 결혼식장을 찾았다.

이 외에도 정대선 현대 비에스엔씨 사장과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김동



관 한화큐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예식장 정문에서 모습이 포착됐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 부사장은 1982년생으로 대일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육군 중위 전역 후 2007년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현대중공업 재무팀 대리, 2011년~2013년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를 거쳐 2013년 현대중공업그룹 기획실 기획팀 담당(수석부장)이 됐다. 이후 2018년부터는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 현대중공업지주 경영지원실장(부사장), 현대중공업선박해양영업사업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